

‘광주 vs 강원’ 시·도민구단 돌풍의 주역 만난다

7일 강릉서 K리그 21라운드

광주, 지난해 3위 아시아 무대 진출
강원, 현재 4위... 선두 김진호와 5점 차
측면에서 김진호·신창무 활약 기대



연패의 흐름을 끊어내는데 성공한 광주FC가 강릉으로 최장거리 원정을 떠나 강원FC를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광주 선수단은 시도민구단 돌풍을 이끌고 있는 자존심 대결인 만큼 반드시 승리를 챙긴다는 각오다.

광주는 오는 7일 오후 7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강원과 하나은행 K리그 2024 2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에서 강릉까지 약 452km에 달하는 1부리그에서는 최장거리의 원정길이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에서 자칫 침체될 수 있었던 흐름을 끊었다. 지난달 30일 제주유나이티드전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연패에서 탈출했고, 올 시즌 8승 1무 1패(승점 25)를 기록하며 순위도 8위에서 7위로 올라섰다.

파이널A권(6위 이상) 재도약도 가시화됐다. 현재 6위인 FC서울(7승 6무 7패·승점 27)과는 승점 2점 차이로 이번라운드에서 광주가 강원을 꺾고 서울이 제주에게 패배한다면 순위를 맞바꾼다.

연패의 흐름을 끊은 것뿐만 아니라 극장골을 터트린 것도 고무적인 요소다. 직전 제주전에서 가브리엘 티그랑이 1-1로



광주FC가 오는 7일 오후 7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강원FC와 하나은행 K리그 2024 2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FC 가브리엘(오른쪽)이 지난달 3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 20라운드 홈경기에서 극장골을 터트린 후 빅토리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맞선 후반 44분 김진호의 크로스가 빅토리의 머리에 맞지 않고 뒤로 흐르자 침착하게 발끝으로 밀어 넣으며 득점을 만들어냈다. 11라운드 이후 9경기 만에 후반 막판 결승골을 만든 광주였다.

강원은 올 시즌 10승 4무 6패(승점 34)를 기록하며 4위에 올라 있다. 지난해 광주가 3위를 차지하며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출전권을 따냈다면 올해는 강원도 아시아 무대를 노

리는 모양새다. 특히 돌풍의 중심에는 고등학생인 양민혁이 서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준프로 계약으로 입단한 양민혁은 20경기에 모두 나서 5득점 3도움을 올리면서 정식 프로 계약을 맺었고, 프리미어리그(잉글랜드 1부리그)의 구애를 받고 있다. 이적생인 이상현도 20경기에서 8득점 5도움으로 득점 5위, 도움 4위, 공격포인트 1위에 올라 있어 임대가 만료된 야고

카리엘로의 공백에도 강한 공격력을 뽐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광주는 강원과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승리를 쟁긴 기억이 있다. 지난 3월 2라운드 맞대결에서 4-2 승리를 거두며 개막 2연승을 달렸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강원을 연승 제물로 삼아야 하는 시점이다. 당시 득점포를 가동한 최경록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지만 가브리엘과 이건의

가 존재하다. 도움을 올렸던 엄지성이 EFL 챔피언십(잉글랜드 2부리그) 스완지 시티 AFC로 이적하며 이탈했지만 정호연이 힘을 보탠다.

상대 전적 역시 자신감을 더할 수 있는 요소다. 광주는 통산 전적에서 강원에 9승 11무 5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도 4승 4무 2패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강원을 잘 아는 자원들도 측면에서 힘을 보태야 한다. 김진호와 신창무는 강원에서 광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선수들이다. 김진호는 올 시즌, 신창무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광주에서 새출발했다.

김진호는 올 시즌 19경기에 나서 공수를 가리지 않는 활발한 활동량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직전 제주전에서 가브리엘의 극장골을 도우며 광주 이적 후 첫 도움이자 공격포인트를 신고, 물오른 감각을 선보였다.

신창무는 길었던 부상의 그림자를 완벽히 털어냈다. 지난달 실전에 복귀해 17라운드 김천전에서는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엄지성의 쐐기골을 도왔고, 직전 제주전에서는 환상적인 중거리슛으로 선제골을 터트리며 측면의 최우선 옵션으로 떠올랐다.

광주는 강원 원정을 마친 직후 약 314km의 장거리를 다시 이동해 주중 울산 원정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력적으로 다시 한번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위기지만 상위권 도약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규빈 기자**

‘정해영·이우성 출전 불발’ 장현식, 울스타전 간다

부상으로 교체... 키움 송성문도

올해 울스타 베스트12 팬 투표 최다 득표의 주인공에 등극했던 KIA타이거즈 투수 정해영이 어깨 부상으로 출전이 불발돼 장현식(사진)이 대신 출전 기회를 얻었다. 프로 데뷔 후 첫 베스트12에 선정된 내야수 이우성도 허벅지 부상으로 아쉬움을 안게 됐다.



아(SSG랜더스)가 역시 부상을 입어 내야수 박지환(SSG랜더스)과 외야수 황성빈(롯데자이언츠)으로 각각 변경됐다.

KBO는 리그 규정에 의거해 베스트12에 선발된 선수가 부상을 입어 출전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포지션의 차점자를 선정한다. 만약 차점자가 감득 추천 선수로 선발된 경우 베스트12 자격을 부여하고 감독 추천 선수를 재선발한다. **한규빈 기자**

제3회 광주당구연맹회장배 전국3쿠션 대회 내일 개막

국내 아마추어 대회 최대 규모의 '당구 동호인 축제'가 빛고를 광주에서 펼쳐진다.

'제3회 광주시당구연맹 박종규회장배 전국3쿠션 당구대회'가 오는 6-7일 이틀간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다.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시당구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충북, 부산, 대구, 경남, 경북, 강원도, 제주도 등 전국 각지의 동호인 1024명이 참가한다. 경기종목은 3쿠션 개인전으로 6일과 7

일 중복 출전이 가능하다. 이번 대회 광주지역 출전 선수 가운데 유력한 우승 후보로는 이우동(광주다모동호회) 선수가 꼽힌다. 전국 동호인대회 최다 우승자인 그는 최근 건강문제로 활동을 잠시 쉬었으나 복귀를 알리며 다른 참가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개회식은 7일 오후 3시 열리며 경품 추첨 행사를 통해 개인규를 비롯 푸짐한 상품이 증정된다. 원조 합합 가수 현진영과 1세대 한류 그룹 NRG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최동환 기자**

광주FC 엄지성, 英 스완지시티 이적

화상 회의 후 이적 확정 세부 합의 내용 비공개

광주FC U-18(금호고)을 거쳐 프로 무대에 입성한 '프랜차이즈 스타' 엄지성(22·사진)이 유럽 진출의 꿈을 이뤘다. 김정민에 이어 두 번째 탄생한 광주에서 유럽 무대 직행 사례다.

4일 광주FC에 따르면 노동일 대표이사가 전날 오후 5시 스완지시 AFC 대표와 화상 회의를 통해 엄지성 이적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 엄지성의 스완지 시티행을 확정지었다.

앞서 광주가 엄지성에 대한 이적 허용 방침을 세우고 스완지와 구단 간 협상 테이블을 차린 사실을 인정한 지 약 나흘 만이다. 이적료와 옵션 등 세부 내용은 양팀 합의에 따라 발표하지 않는다.

금호고를 졸업 후 곧장 프로 무대에 입성한 엄지성은 데뷔 시즌인 2021년 K리그 1 37경기에서 4득점 1도움을 올리며 존재감을 알렸다. 이어 2022년 K리그 2 28경기에서 9득점 1도움을 올리는 등 팀 우승과 함께 영플레이어상, 베스트 11을 휩쓸며 주축으로 우뚝 섰다.

엄지성은 2023년 K리그 1 28경기에서 5득점 3도움을 올리며 꾸준한 활약을 이어갔다. 특히 광주의 3위 등극에 크게 기여하며 구단 역사상 첫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에도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K리그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23세 이하 국가대표팀에 꾸준히 발탁되며 2024 WAFF(서아시아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우승과 2024 AFC U-23 아시안컵 카타르 8강 진출 등에 기여했고 2022년 1월에는 A대표팀에 승선해 아이슬란드에 상대로 데뷔전 데뷔골을 터트리기도 했다.

스완지는 엄지성의 활약을 꾸준히 지켜보며 적극적인 영입 의사를 밝혔다. 지속적인 구애를 전달하며 마음을 잡았고, 광주 구단은 엄지성의 미래와 유럽에서의 성공에 포커스를 맞추고 협상을 펼쳤다.

엄지성은 기성용(FC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스완지 유니폼을 입는 한국 선수가 됐다. 기성용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스완지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를 누볐다. 엄지성은 스완지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승격의 꿈을 꾸는다.

또 엄지성은 김정민(제주유나이티드)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에서 유럽 무대로 직행한 사례를 썼다. 김정민은 금호고를 졸업한 직후인 지난 2018년 광주와 프로 계약을 맺고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FC 레드불 잘츠부르크로 이적한 바 있다.

한편 광주는 이번 주중 엄지성의 환송식을 마련해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엄지성은 이 자리에서 감사를 전하고 마지막 예우를 다할 계획이다. **한규빈 기자**

